



우리 농산물 신뢰 및 농약의 인식전환에 앞장설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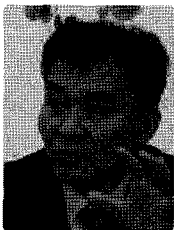


일 시_ 2011년 3월 15일(화)

장 소_ 한국삼공 회의실

참석매체_ 농민신문: 이승인 차장
농수축산신문: 지윤희 기자
원예산업신문: 장호열 국장
한국농어민신문: 문광은 부장

한국영농신문: 민병호 국장
한국농자재신문: 심미진 기자
한국농정신문: 김규태 국장



위: 한태원 회장
아래: 조상학 상무이사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는 맹목적인 친환경농업 분위기에 편승되어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여전한 데다 최근 급격한 출하량 및 매출액 감소 등이 이어지는 등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농약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해결방안을 논

의하고자, 지난 3월 3일 취임한 한태원 신임회장과 본회 조상학 상무이사, 농업전문지 기자들이 신춘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우리 농업을 진단하고 농업인의 위상정립을 위한 농약의 역할 제고 소비자의 일반농산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업계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미래농업의 동반자로서 중추적인 역할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질의순서: 매체가나다순).



농민신문 이승인 차장

농약업계는 최근 2~3년동안 매출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 저조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 현장을 둘러보면 여러 여건상 농업인들이 농약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업계가 새 활로를 찾기 위한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 이십니까?

물론 일선 농업인의 인식변화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약은 근본적으로 자연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계절산업이며 인류에 가장 소중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내야 하는 특수임무를 부여 받은 자재입니다.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의도에 따라 사용량이 증감을 반복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기상여건이나 농법 상 인위적으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자재와는 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업계는 사용량 제고에만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투입 고효율의 약제는 물론 선택성 농약의 개발로 안정적인 약효발 현과 노동력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생물 농약 개발 등 친환경농업 분야 자재에 대한 개발노력도 당연히 병행함으로써 소비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는 신약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으나, 정부지원과 업계 공동으로 R&D분야의 투자를 강화하여 시대의 변화 흐름에 동참할 것입니다.



농수축산신문 지윤희 기자

농약관련 제도개선 등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현안

사항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협회의 올 한해 가장 큰 중점 과제 혹은 사업으로 무엇을 꼽고 있으십니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는 농약관리법의 일정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늦지 않은 시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관련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어 다행입니다만, 동일품목 동일 라벨화 적용이나 자진취하 농약의 유통관리 방안 등 이슈화된 현안해결 방안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약관리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업계만의 입장 대변이 아닌 대의적인 측면에서 우리 농업의 발전과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의무,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거리를 섭취해야할 권리, 정부는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상호간의 신뢰를 위한 정책수립의 의무, 이 삼박자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우리 농업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농업인 대상 '농약안전사용 교육' 과 소비자 대상의 '우리 농산물 및 농약의 안전성 교육' 을 올해는 소비자파워유저 및 초중등 영양급식교



신춘간담회 - 제18대 한국작물보호협회 한태원 회장 취임

사와 전국 광역시 농업인 대상으로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확대에 따라 농약사용지침서 어플리케이션 '앱' 개발을 추진하여 농약의 올바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예산업신문 장호열 국장

저농약농산물이 2015년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에서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 및 GAP농산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농약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바 이에 업계의 대응방안과 향후 협회의 파워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저농약농산물의 인증폐지에 따라 GAP농산물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GAP인증절차의 어려움이 많아 급속한 확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GAP농산물은 재배단계부터 수확후 포장, 선별·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농약사용 측면에서만 보면 재배과정에서 적용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AP농산물의 차별화 부각은 오히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일반농산물의 불신만을 초래, 대다수 농업인들의 입지를 좁힐수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농업인에게 재배작물에 맞는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 작물별 농약 등록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회는 회원사를 위해 관세감면, 농약 품목등록시험공동추진, 빈병수거보상금제도 운영, 농약의 인식전환 홍보 등 실질적으로 회원사에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농업인 안전사용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동교육을 위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협회 자체연구소를 설립, 수익사업을 통해 경영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문광운 부장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강화와 함께 농약업계가 직면한 현실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의 당면 현안과 극복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이상기후로 농약업계는 매출하락과 시중유통 재고물량증가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생산농산물중 95%이상은 농약(친환경농산물중 저농약 포함)을 사용하여 생산되며 이중 88%는 관행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지난 10여년동안 정부의 친환경육성정책은 12%의 친환경농산물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온바 관행농법을 등외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과 식량안보, 국민의 건강을 종합적 재검토하여 정책방향의 수정이 필요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업계는 지난 IMF때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원사간의 폭넓은 의견 조율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안전성과 약효가 입증된 농약개발보

급에 중점을 두어 관행농법 농업인의 위상을 제정립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영농신문 민병호 국장

국내에서 농약산업은 한계에 다달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수출산업으로의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국내 내수시장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이 급선무이지만,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국이 전세계적으로 가격우위를 점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우리가 보유한 특화된 품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농자재신문 심미진 기자

일선 농업인들과 예비 귀농인들에게 농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오.

국민소득 수준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일반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약의 올바른 약제선택과 안전사용기준을 준

수하시어 오·남용으로 인한 약해사고 미연의 방지와 부적합농산물 발생 최소화로 농가 생산비 경감과 소득증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한 농약살포전 반드시 마스크, 보안경, 방제복 등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시어 농약중독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이 우리 국가경제의 근간이라는 자긍심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농정신문 김규태 국장

협회나 제조사들이 농약의 오·남용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판매량확대를 위해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협회나 농약업계에서 판매확대를 위하여 농약의 오·남용 방지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회사와는 별도로 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필드마케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최일선에서부터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계도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며 업계만의 몫이어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와 학계, 언론 등 모두의 노력과 인식이 일치될 때 제대로 된 성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㉞